

2011년 7월 11일
LG Electronics, Inc.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
주식회사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

LG전자와 히타치가 물사업에 관한 합병회사 설립에 합의

LG Electronics, Inc.(본사: 대한민국(이하, 한국)서울시, Vice Chairman & CEO: 구본준 / 이하, LG전자)와 주식회사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본사: 동경 토시마구, 사장: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 이하,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는 이번에 물사업에 관한 합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LG전자와 주식회사 히타치제작소(본사: 동경 치요다구, 사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 이하, 히타치),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는 LG전자가 보유한 영업력 및 설계·제조기술력과 히타치그룹의 수처리시스템·정보제어시스템에 관한 기술력·엔지니어링력을 융합함으로써, 물사업의 확대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본 합병회사 「LG-Hitachi Water Solutions Co., Ltd.」는 2011년 10월에 설립될 예정으로 출자비율은 LG전자 51%,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 49%가 됩니다. 합병회사는 향후, 주로 한국에서 각종 공장의 배수처리설비와 상수·하수처리시설용 기기의 제조·판매를 비롯하여 시스템의 설계·조달·건설(EPC)*1, 시설의 운전·유지관리(O&M)*2 및 수처리 기술의 연구개발을 합니다. 또한, 장래에는 제3국의 물사업에 참여해 가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세계의 담수자원은 지역 편재성이 매우 높고, 절대량도 한정되어 있어 향후 인구증가, 경제성장, 지구온난화, 도시화, 물환경의 오염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물의 수급이 급박해지고, 물 문제의 현재화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회사의 설립은 히타치그룹이 보유한 물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물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는 LG전자와, LG전자의 한국에서의 영업력·채널을 활용함으로써, 물사업의 수주확대를 지향하고, 동시에 LG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표준화·대량생산기술의 수처리기기·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지향하는 히타치그룹의 의향이 일치한 것입니다.

LG전자의 물사업은 종래부터 물두해 온 가정용 정수기와 더불어, 최근에는 각종 막의 개발에도 힘쓰고 있고, 이러한 핵심기술의 하나로서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히타치 그룹의 물사업은 약 1세기에 걸친 역사가 있고, 국내외에서 풍부한 납입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물사업을 사회이노베이션사업의 성장 분야로 평가하여, 사업을 견고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그룹 전체의 사업전략을 책정·입안하는 「물환경 솔루션사업 통괄본부」를 2010년 6월 1일부터 히타치의 사장 직할의 조직으로서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아시아와 중동 등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노하우를 보유한 막처리와 생물처리를 비롯한 선진 물 순환시스템과 IT 융합에 의한 토털 솔루션의 능력을 활용하여, 기기·EPC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까지 포함한 종합 물사업을 확대하고, 2015 년도의 물사업 전체에서 2,000 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합병회사의 개요

회사명	LG-Hitachi Water Solutions Co., Ltd.
본사 소재지	한국 서울시
사업내용	수처리 기기의 제조·판매, 수처리시스템의 설계·조달·건설 (EPC) , 수처리 시설의 운전·유지관리 (O&M) , 수처리 기술의 연구개발
대표자	미정 (LG 전자에서 CEO,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서 COO 가 취임 예정)
설립년월	2011 년 10 월 (예정)
자본금	180 억원 (일본엔 환산 : 약 14 억엔) *3
출자비율	LG 전자 : 51% ,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 : 49%

*1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설계·조달·건설).

*2 O&M : Operation and Maintenance(운전·유지관리).

*3 1 원=0.076 엔으로 계산.

이상.